

August Konkel 박사, 역대기, 세션 13, 성전 건축자 솔로몬

© 2024 거스 콘켈(Gus Konkel) 및 테드 힐데브란트(Ted Hildebrandt)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3회, 성전 건축자 솔로몬입니다.

우리는 다윗이 성전 건축 노력에서 솔로몬을 지원해야 한다는 명령을 이스라엘 총회에 전달하는 것으로 마지막 세션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솔로몬의 통치로 넘어가겠습니다. 역대기의 견해에 따르면 솔로몬의 통치와 함께 시작되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있습니다. 이는 28장에 나오는 다윗의 연설에서 이미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나의 왕위를 계승할 후계자로 지정하셨다고 말하며, 그것을 히브리어 샬롬과 연관시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친숙한 단어일지도 모르지만 히브리인들은 그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는 다소 포괄적인 의미의 평화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역대기 저자는 솔로몬과 함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평화와 안식의 섬뜩한 시대입니다. 다윗은 전쟁에 능하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역대기 기자가 본질적으로 다윗의 제국 확장, 즉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따라서 암몬 사람들과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다윗은 그들을 정복하면서 자신의 영토를 멀리 아람 지역과 암몬과 모압과 에돔과 블레셋 주변 지역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다윗의 제국이 되고 그는 정복과 전쟁을 통해 그 제국을 얻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도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지적합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므로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솔로몬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에게 평화를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의 안식을 대표하는 자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성전을 건축할 자격을 얻는 자입니다.

따라서 역대기 개요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섹션으로 이동합니다. 역대기의 첫 번째 부분에서는 국가의 정체성을 다루었고, 그 다음에는 왕국의 설립과 성전 준비를 다루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전으로 갑니다. 그것은 솔로몬의 통치로 시작됩니다.

따라서 역대기의 다음 큰 블록은 9장 끝까지 솔로몬과 성전 건축, 그리고 그의 통치의 위대함을 다루게 됩니다. 역대기 에서 솔로몬은 평화의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모든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

우리는 열왕기에서 볼 수 있는 솔로몬의 실패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듣지 못합니다. 연대기가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이것이 아니다. 그 대신, 그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처음 9장 전체를 살펴보면, 실제로 구조가 있다는 것을 즉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시작하는 지점이 끝나는 지점이기도 한 Chiasmic 종류의 구조 또는 palistrophe 유형 구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요 지점을 향해 발전한 다음 돌아오는 길에 주제를 반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지적하게 될 종류의 구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윗에 대한 연대기 작가의 발표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내용과 자료를 기억하고 그것이 어디에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인 니모닉 장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것은 솔로몬으로 시작하는 솔로몬입니다. 그는 주님을 찾는 사람이고, 우리는 이미 연대기 작가의 사물 구성에서 추구라는 단어의 중요성을 지적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은사를 받았던 기브온에서의 환상, 즉 솔로몬의 권력, 부, 영향력에 대한 진술을 봅니다.

그렇다면 요점은 이것이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관한 거의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솔로몬의 엄청난 무역과 부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아라비아 지역의 스바 여왕의 방문과 솔로몬의 지혜와 부의 종결을 통해 그의 국제적 명성을 봅니다.

따라서 연대기 작가가 솔로몬을 소개하기 위해 사용하는 구조는 어느 정도입니다. 그는 또한 성전 건물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유사한 구조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2장에서 노동력과 재료의 공급으로 시작합니다. 건물과 그 비품은 다윗이 그에게 준 것입니다.

성전의 헌납, 백성의 헌납. 여기에는 성전의 봉헌과 그 기능을 상기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이전에 맺은 언약에 대한 불순종과 불충실에 대한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시 솔로몬에게 재료와 모든 것이 공급되었던 방식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성전 준비부터 시작합니다. 이러한 교차점 중 또 다른 하나는 2장 2절에서 노동력 징집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솔로몬이 히람에게 보낸 편지 2장 3~10절. 솔로몬에 대한 히람의 반응과 그에 따른 노동력은 2장에 있습니다. 3장 1절부터 5장 1절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성전 구조와 그 비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자체의 기초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연대기 기자는 그에게 독특한 약간의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여기에서 그는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외아들 이삭을 여호와께 선물로 드리는 시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모리아산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모리아 산의 실제 지리와 위치는 창세기에서 자명하지 않지만, 연대기 기자는 그 산을 다윗이 전염병이 멈춘 타작마당의 성전 부지로 지정한 것과 동일한 산으로 식별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 성전이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왜 전통적으로 이 언덕이 현대의 유대인 신앙과 유대인 배경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원하고 신성한 언덕이 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곳은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점령되었고 그들은 그 언덕 꼭대기에 자신들의 사당을 지었습니다. 이는 특히 통곡의 벽을 따라 두 집단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유대인들은 여전히 기도하러 오는 것이 허용됩니다.

통곡의 벽은 본질적으로 헤롯이 지은 성전의 기초 중 일부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연대기 기자가 여기서 부르는 것처럼 그들이 모리아 산에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3절부터 7절까지 성전의 전체 구조와 3장과 4장에 있는 성전의 기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전의 구조와 기능, 다윗이 솔로몬에게 성전을 준 방식.

이를 위해 출애굽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실제로 성막의 선을 따라 설계되고 모델링되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동일한 치수입니다. 그것은 상징주의와 동일한 구조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클 뿐입니다. 이제 로마의 성전 건축 기준으로 볼 때 성전은 여전히 작은 공간이었지만 확실히 그 규모는 장막의 두 배나 컸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성막의 본질적인 구조, 즉 광야에서 있었던 방식이며, 솔로몬의 성전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깥 둘레에 있는 것은 성막 안에 있는 뜰이다. 이것은 벽으로 둘러싸인 커튼이었습니다. 그러나 물론 솔로몬의 건축에서는 이 모든 것이 성벽 바깥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뜰 안에는 정확하게 대칭적인 방식으로 자리잡은 건물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쪽을 나타냅니다. 불행하게도 이 슬라이드에서는 남쪽과 북쪽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는 동쪽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건물의 동쪽은 뜰의 중앙에 있었습니다. 성막의 경우에 우리는 그 건물을 보았는데, 성막의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하고 30큐빗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성막 뒤편의 가장 거룩한 곳은 가로 10큐빗, 세로 10큐빗이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그 수치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20큐빗 x 20큐빗 x 20큐빗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20큐빗이 아니라 40큐빗입니다. 휘장 앞에는 분향단이 있는데, 휘장 뒤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물론 향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기 위해 매일 피울 뿐만 아니라 특히 속죄일에 피워집니다. 제단 위에 뿌린 향은 지성소의 영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보호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진 것은 창조물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보여주는 떡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빛을 주는 메노라(menorah), 즉 가지가 달린 촛대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특히 다음 프레젠테이션에서 보게 되겠지만, 이 모든 것은 창조를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 안에 계시지만 실제로는 어떤 종류의 물리적인 임재도 갖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거룩하신 분에게 속해 있습니다.

거룩함은 단순히 또 다른 차원입니다. 거룩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차원인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는 차원입니다. 우리는 육체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간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측정합니다.

우리는 물리적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구를 공간적으로 측정할 뿐만 아니라 지구 너머의 행성도 공간적으로 측정합니다. 이는 우리가 지구 자체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종류의 용어입니다.

지구 너머의 우주에 관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다소 아이러니합니다. 우리는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는 단순히 거룩함에 속하지 않는 제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관련이 없습니다. 해당되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이란 과연 무엇인가? 창세기 1장 14절은 때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해와 달을 제자리에 두시고 빛을 주십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우리는 계절과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으로서 우리는 시간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공전을 통해 1년 단위로

측정됩니다. 우리는 지구에 관한 한 고정된 위치에 남아 있는 별들을 관찰해야만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제로 모두 매우 상대적입니다.

우리가 공간과 시간에 대해 이야기하는 모든 방식은 우리가 여기 지구상에서 일을 하는 방식과 완전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또 다른 차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룩하다고 불리는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역인 차원은 시간이 창조되고, 공간이 창조되는 차원이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의 이 부분은 시간과 공간을 대표하지만 성소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겠지만, 성전의 경우 이 거룩함은 어둠으로 표현됩니다. 이는 단지 빛에 의존하지 않는 또 다른 차원, 즉 땅이 빛에 의존하는 방식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이라는 관점에서 빛으로 사물을 측정하지 않는 또 다른 차원입니다. 그것은 단지 어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다른 영역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그림이자 은유입니다. 인간으로서의 육체적 한계로만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는 그의 인격과 존재의 의미에서 상대적인 방식으로만 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를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거룩함에 대해 끊임없이 상기시켜줍니다.

앞서 웃시야의 죽음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방주를 연구하려는 단순한 행위에 대한 너무나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공동의 영역, 땅과 창조 등의 영역에서 거룩함을 대표할 상징은 그 상징을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 땅의 특성에만 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주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바깥뜰에도 제물을 바치는 큰 청동 제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는 바다라고 불리는 것이 있습니다. Chronicler는 그런 식으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다는 또한 창조가 이루어진 순서를 나타낸다는 점에서 열왕기에서 상징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바다는 그것이 무엇이든 창조 이전의 것과 동일시됩니다. 그러나 역대기에서 이것은 희생 제물과 관련된 정결과 관련된 훨씬 더 실용적이고 실용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는 성전의 기구들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거룩함의 차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성소인 알현실 자체는 모두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은 모두 금으로 도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뜰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원에는 세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물론 성소는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유한한 인간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들뿐이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통치가 표현되는 방식과 연대기 기자가 이에 대해 이야기할 방식은 성경에서 그룹이라고 부르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들은 소와 사자, 독수리, 인간 등 복합 생물입니다. 그들은 가축, 야생 동물, 새, 인간 등 모든 영역에 걸쳐 하나의 영역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이 그룹들은 고대 근동에서 친숙한데, 왜냐하면 그것들은 항상 통치와 통치, 보좌를 상징하는 데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 성전에 대한 연대기 작가의 묘사에서도 같은 종류의 내용을 보게 됩니다. 이제 저는 실제로 대영 박물관에 있는 이 특별한 생물 옆에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하다. 내 머리는 이 동물의 대략 거기까지 올라옵니다. 그것은 대영제국 시대에 이라크에서 대영박물관으로 옮겨졌는데, 당시 그들은 전 세계의 모든 것을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독수리의 날개, 소의 발, 소의 몸통, 말하자면 소의 몸통, 소의 다리, 사자의 발, 그리고 다음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의 머리다. 그리고 이들은 아슈르바니팔의 궁전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팔레스타인에서 나온 비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므깃도에서 나온 보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좌가 어떻게 디자인되고 표현되었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설명은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가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로 표현되는 방식 뒤에 숨어 있는 사상임을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은 거대합니다. 성소의 너비는 20규빗이다.

그리고 그룹들의 끝은 벽 양쪽에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대합니다. 여기에 좀 더 정상적인 인간 왕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발판이 있는데, 이 발판은 법궤로 상징될 것입니다. 방주 안에는 언약이 들어있습니다. 언약은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나타낸다.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10계명이라고 부르는 10개의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실제로 계명 그 이상입니다. 그들은 삶과 가족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명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좌의 옆면인 독수리 날개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왕좌 의자 앞에 앉아 있는 남자의 머리가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자의 시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사자는 바로 몸입니다. 그리고 발굽은 소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동일한 네 생물, 즉 소, 사자, 날개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왕 자신이 왕좌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는 솔로몬 시대에도 친숙했습니다. 그리고 의심할 바 없이, 역대기 기자가 솔로몬의 성전을 묘사하는 시대에도 그것이 여전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연대기 저자는 솔로몬의 성전을 채택하고 솔로몬의 성전을 그의 경전 기록에서 발견한 대로 묘사합니다.

그는 열왕기서에서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룹의 다이어그램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러한 비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발판, 사자의 몸통, 소의 발 등이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 그러므로 지성소는 이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지성소의 특이한 점은 보좌를 앉을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에서 그룹들이 하는 일은 모두 다스림을 상징하기 때문에 보좌를 위한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룹의 날개는 중앙에 닿고 그 다음에는 두 벽에 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발등상이 보이는데, 그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법궤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방주의 윗부분은 금도금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데트(kaphodet) 라고 합니다 . 그러나 카파르 (히브리어로 속죄하다)는 단지 언약에 대한 범법 , 언약의 실패가 여기에서 용서받은 것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표현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 그래서 카포데트 꼭대기에 피를 뿌리는 속죄일이 있는 것입니다 .

카포데트 꼭대기에 뿌려집니다 . 물론 그 안에는 지성소 안에 있는 돌판과 그룹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역대기 기자 시대의 사람들이 실제로 본 적이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재건되어 복원되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성전 시대의 법궤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따라서 복원 당시 성전의 복제물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것이 상징하는 모든 것의 사실만큼 연대기 작가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그들은 생명이 피에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대속물, 즉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언약의 범법에 대해 지불될 수 있는 형벌은 피로 표현됩니다.

카호데트 꼭대기에 뿌려서 온 백성 곧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속죄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연대기 기자가 다양한 왕들과 그의 시대에 이러한 축하 행사가 지켜졌던 다양한 시기를 살펴보면서 명확해져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개념입니다. 연대기에는 명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으며 실제로 어디에도 명시적으로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편이 이러한 것들 중 일부를 훨씬 더 많이 암시하고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성전의 상징이다. 그리고 물론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이 상징들은 모두 히브리서 기자가 애써 지적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심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피를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이십니다.

예수님은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그것은 우화가 아닙니다. 성전은 예수의 다양한 측면을 상징하는 성전의 각 부분에 대한 비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인간으로서 우리 중 하나가 되심으로써 성전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상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성전이 그분의 몸을 상징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의 몸은 이전 시대와 연대기 작가 시대에 존재했던 물리적 표현의 필요성을 대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를 읽을 때, 어떤 면에서는 속죄의 의미와 의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사역의 의미와 의미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함입니다.

비록 우리가 유한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방식으로 그분의 언약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작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용서가 이루어질 수 있고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수 있는지. 역대기에서 읽을 수 있듯이 성전은 단순히 웅장한 건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 면에서, 인간의 관점에서 볼 때, 고대 과거의 다른 위대한 건물들과 비교할 때, 그것은 실제로 그다지 훌륭하지 않았습니다. 웅장한 건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금으로 덮여있었습니다.

역대기 기자가 말한 대로, 성소 안 벽에는 그룹들이 새겨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창조를 대표했습니다. 정말 멋진 곳이었습니다.

당시의 연대기 작가에게 이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을 건축해야 하고, 그 기능인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중요성에 대한 그의 헌신은 이것이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이라는 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시대에 적절하게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연대기 기자의 시대에 그 일이 일어난 방식은 하나님의 성전과 그 주변의 백성들에게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대기의 많은 부분이 성전에 할애되고 솔로몬의 삶의 대부분이 성전에 할애된 이유입니다.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아우구스트 쿤켈 박사(Dr. August Kunkel)입니다.

이것은 역대기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Dr. August Konkel입니다. 13회, 성전 건축자 솔로몬입니다.